

건축설계교육의 형성에 관한 연구

김형준^{1*}

¹제주대학교 건축학부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Hyoung-Jun Kim^{1*}

¹School of Architec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근대 초기 과거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서 전혀 다른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는 건축설계방법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건축설계교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초기에 형성된 건축설계교육의 원형을 살펴보고 그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설계교육의 근원을 찾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건축설계교육이 하나의 학문적 영역 또는 교과목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체계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건축설계교육의 원형과 형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근대 초기에 형성된 건축설계교육은 두 가지 경향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중합되면서 건축설계교육의 원형이 되었다.

Abstract The architectural design methodology had been changed under control of Modern life. At that time,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was formed directly by modern architects for their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introducing the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to our college education of architecture on various si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orm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and its origin meaning on the basis of subjects and learning factors in the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The special subjects and learning factors can be studied in the aspect of process and method that molds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wo properti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were revealed. One property is creation that was revealed by Ecoles des Beaux-Arts'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Another property is that rationality that was revealed by in Ecole Polytechnique's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Key Words :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Creation, Rationality

1. 서론

건축설계의 역사는 고대 문명의 태동부터 시작한다. 피라미드를 계획하고 감독한 이집트의 재상 임호텟부터 베드로 성당의 평면을 계획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

로에 이르기까지 건축설계의 선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설계 방법은 18세기 근대사회의 태동기에 건축 전문가들에 의한 건축설계교육이 등장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18세기 과거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서 전혀 다른 생활양식으로

이 논문은 2011년도 제주대학교발전기금 효천학술연구기금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oung-Jun Kim

Tel: +82-19-327-1515 e-mail: kimhj@jejunu.ac.kr

접수일 12년 04월 23일

수정일 (1차 12년 05월 07일, 2차 12년 05월 31일)

게재확정일 12년 07월 12일

의 변화는 건축설계방법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건축설계교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초기에 형성된 건축설계교육의 원형을 살펴보고 그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설계교육의 근원을 찾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건축설계교육은 18-19세기 프랑스의 건축설계를 주도 하던 건축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럽의 건축 전문가 집단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당시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들은 프랑스의 건축 전문가 집단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건축설계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이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고 학생을 교육하면서부터 ‘건축설계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건축설계교육이 하나의 학문적 영역 또는 교과목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체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건축설계교육의 원형과 형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건축설계교육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

근대적 건축교육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근대 과학의 새로운 정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것을 최초로 실천에 옮기는 등 과학이나 다른 학문분야의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흐름의 기반에는 학문분야별로 자리 잡은 아카데미의 영향의 컸다. 16세기에 프랑스는 아카데미를 통해 예술과 과학의 분야를 하나로 묶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반대로 각기 다른 학문 분야별로 독립된 아카데미가 17세기에 설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671년 왕립건축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물론 당시의 건축설계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세 길드의 전통은 아카데미가 형성되던 초창기에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다. 그러나 아카데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후원과 그에 대한 조건으로 미술가, 건축가들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과 원리를 부여하게 되면서 중세적 길드 전통은 약화되었다. 여기에 국가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 아카데미가 건축과 예술에 대한 적합한 규범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면서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들도 왕립건축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양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 건축학교의 전신은 1671년 설립된 왕립건축아카데미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자끄 프랑소와 브롱델의 사설학교인 에콜 데 자르(Ecole des

Arts)가 1743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1747년 에콜 데 폰제 솅세(L'Ecole des Ponts et Chaussées)에 건축학파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789년의 시민혁명 이후에는 혁명이념에 맞는 새로운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에콜 노르말(Ecole Normale), 에콜 상트랄(Ecole Centrale), 에콜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819년 에콜 데 보자르(Ecoles des Beaux-Arts)가 설립되었고, 이 학교를 통해 건축설계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체계가 구축되었다.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은 파르티(Parti), 에스키스(Esquisse), 마르쉬(Marche)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교육과정 중에 학생들은 프로그램(Programme) 등의 건축설계방법론을 학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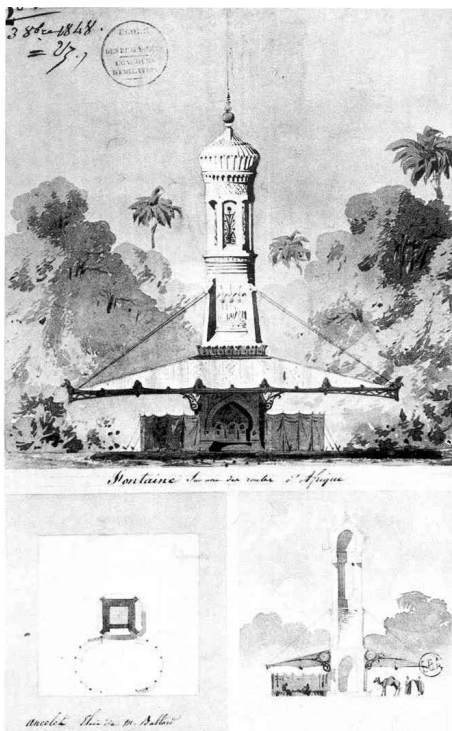
2.1 파르티와 에스키스

파르티는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디자이너가 직관에 의해서 형성시킨 개념적 구상을 의미한다[1]. 다시 말하면 건축설계를 위한 기본개념으로써 건축가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의해 형성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파르티를 구체화시킨 최초의 스케치들이 에스키스이며, 에스키스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표현하여 제출하는 도면이 프로제 랑뒤(Projets Rendus; rendered projects)이다.

에콜 데 보자르에서는 각종 콩쿠르가 진행되었다. 이 콩쿠르는 실질적인 건축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상급반으로의 진학, 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로도 활용되었다. 건축교육의 방법으로 시행된 각 콩쿠르에는 먼저 12 시간의 에스키스 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 동안 학생은 앙 로제(en loges)라는 독방형식의 개인 작업실에서 기본개념인 파르티를 정하고, 이것을 에스키스로 표현하여 도면 한 장으로 제출한다. 그 후 2개월 동안 초기안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표현된 3장의 프로제 랑뒤를 제출한다.



[그림 1] 앙 로제, 에콜 데 보자르[1]
[Fig. 1] En loges, Ecoles des Beaux-Arts[1]



[그림 2] 에스키스, 1848[1]
[Fig. 2] Esquisse, 1848[1]

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파르티의 일관성이었다. 만약 최종 제출된 프로젝트 랑뒤가 앞서 제출된 에스키스와 다를 경우 심사위원은 이 안을 콩쿠르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파르티가 건축가의 독창성, 창의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학생들이 알아야 하며,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건축설계과정이며 건축설계의 핵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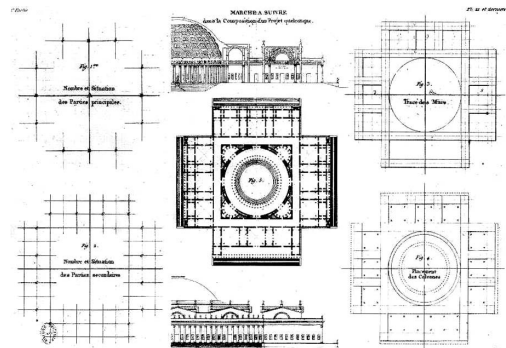
파르티가 형성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건축개념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결정짓는 개인의 직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경우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과정 중 첫 시간에 제시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유형을 의미한다. 곧 미술관, 박물관, 병원, 극장 등 건물의 유형과 주제를 말한다. 학생들은 건축설계주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직관적인 능력과 통합하여 건축개념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파르티이다.

파르티의 선정은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교육과정 중에 제일 중요했다. 건축설계의 시작과 원초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파르티의 선정을 건축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여 가르쳤으며, 이 중요성 때문에 최종설계안이 최초의 파르티와 다른 경우 콩쿠르의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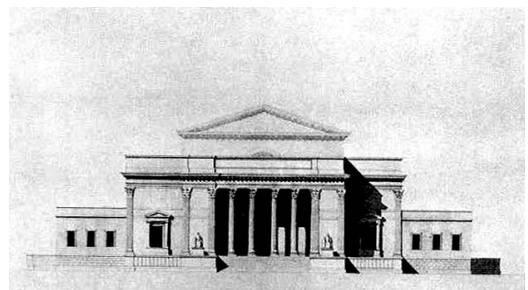
에서도 배제시킨 것이다. 파르티를 구현한 첫 스케치인 에스키스 작성 작업도 앙 로제라는 독방형식의 작업실에서 하도록 한 것은 파르티가 건축설계의 핵심이며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직관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파르티는 개인의 직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본건축개념으로써 건축설계가 시작되는 출발부터 완성까지 지켜야할 하나의 원칙이었다.

2.2 마르쉬

건축설계의 기본개념인 파르티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마르쉬이다. 마르쉬는 문자적으로 받을 한 발자국 내미는 행위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군대의 행진처럼 한 원칙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마르쉬는 에스키스를 일정한 법칙 또는 기본 원리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실제의 건축 디자인 작업을 의미한다. 파르티가 건축가에게 속한 것이라면 마르쉬는 건축가의 디자인 작업에 관련된 것이다. 프로젝트 랑뒤는 마르쉬의 과정을 걸쳐 최종 완성된 건축 설계도면을 말한다.



[그림 3] 마르쉬, 듀랑, 1813[5]
[Fig. 3] Marche, Durand. 1813[5]



[그림 4] 프로젝트 랑뒤, 1834[1]
[Fig. 4] Projets Rendus, 1834[1]

이와 같이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은 학생이 창의적 직관으로 파르티를 건축설계의 기본개념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에스키스로 표현한 후, 마르쉬라는 설계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랑뒤로 완성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18세기 중반 프랑스의 로마대상(Grand Prix de Rome) 콩쿠르에서 최초로 등장한다[2]. 18세기 중반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건물 유형들인 미술관, 박물관, 병원, 극장 등의 건축시설이 등장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그대로 로마대상 콩쿠르에 반영되었고, 이 콩쿠르에서 요구조건의 상세한 목록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전개되었다. 1720년경 건축아카데미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실시된 로마대상이라는 콩쿠르에 등장한 프로그램은 이후 에콜 데 보자르의 각종 콩쿠르를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에콜 데 보자르에서 매월 시행되었던 콩쿠르(Concours Mensuels d'Emulation)의 프로그램은 건축이론을 담당한 교수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그 경향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었다[3].

1819-1914년 사이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수는 대략 500개를 넘으며, 그 중 일부는 후대의 교수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프로그램의 성격은 상급반으로 갈수록, 상위의 콩쿠르일수록 규모가 크고 개념적인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19세기 당시의 프로그램은 콩쿠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건축설계와 파르티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19세기 에콜 데 보자르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을 3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건물 또는 공공에 의해 사용된 건물들: 학교, 시청사, 법원, 박물관, 도서관, 병원, 우체국, 수용소, 극장, 시장 등, (2) 절충적 성격의 건물들: 채플, 성당, 교회 등, (3) 사적인 건물들: 주거 건물 등이다.

이상의 분류를 살펴보면, (2), (3)의 주제들은 중세부터 계속된 건축물들이지만, (1)은 그 당시 계몽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콜 데 보자르의 콩쿠르는 새롭게 형성된 건축물을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시하고, 이것을 파르티, 에스키스, 마르쉬라는 일련의 건축설계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교육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상위 콩쿠르인 '로마대상'의 경우, 프로그램이 1887년까지는 참가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으나, 1888년부터는 참가자 자신이 프로그램을 각자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스스로 설계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개인 각자가 건축물에 따른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주체의 변화는 건축설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축가들에게 건축물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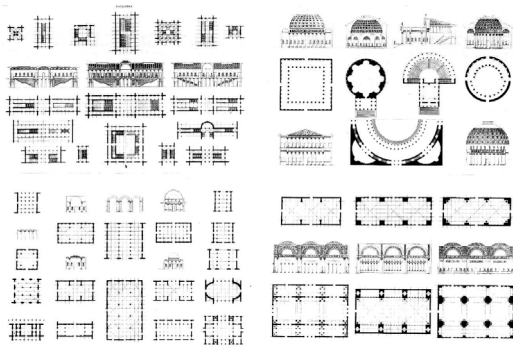
이러한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 방법은 오늘날 건축설계교육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건축관련 학과에서 설계주제와 공간 규모를 적시한 프로그램을 건축설계교과목 개설시에 실라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 첫 시간에 한 학기 동안 해야 할 건축설계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엔 진학할수록 스스로 건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인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4].

3. 에콜 폴리테크닉의 건축설계교육

대부분의 역사가나 이론가들은 19세기에 등장한 듀랑의 이론을 건축교육에서 기능주의 건축설계방법론의 태동으로 본다. 그 이유는 듀랑이 건축교육을 위해 자신의 학생들에게 사용한 교과서와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콤포지션을 통한 건축설계방법에 있다[5]. 곧 듀랑의 콤포지션이 건축교육에 있어서 기능주의적 건축설계방법론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콤포지션에 대한 듀랑의 이론과 언술들,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닉에서 교수로 있는 동안 펴낸 두 권의 책이 당대와 이후 건축교육에 미친 많은 영향들 때문일 것이다.

듀랑의 콤포지션은 건축설계를 신속하게 하는 생산적 수단이었으며, 그 당시 새로운 건축설계교육방법이었다. 듀랑이 콤포지션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건축설계의 수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듀랑이 활동하던 시기에 프랑스는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폴레옹은 늘어나는 전쟁비용의 지출 때문에 건축가들이 계산한 과도한 공사비용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쟁에 필요한 교량과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한 관심이 일반 건축물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건축가보다 공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더 주목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고, 그 위상은 더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공학 및 토목공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에콜 폴리테크닉였으며, 여기에서 듀랑은 건축설계과목을 강의했다.



[그림 5] 듀랑, 콤포지션의 요소들, 1802-05[5]
 [Fig. 5] Durand, Elements of Composition, 1802-05[5]

학교의 성립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콜 폴리테크닉은 건축설계 전문학교라기보다는 엔지니어 전문학교가 더 맞는다. 이곳의 학생들은 대부분 토목이나 건설 등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다. 이들의 건축설계교육은 에콜 데 보자르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과정이라 아니라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때문에 건축설계교육은 콤포지션에 대한 강의와 학습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에콜 폴리테크닉의 건축학과 교수로서 듀랑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건축설계교육방법이 필요했으며, 이에 적용된 방법론이 콤포지션을 활용한 건축설계였다. 듀랑은 학생들에게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곧 현관, 계단, 룸, 포이어, 갤러리, 중정, 복도 등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주고, 이 요소들을 건축설계 프로그램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직하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건축설계교육을 듀랑은 콤포지션이라고 불렀다[6].

듀랑의 콤포지션을 활용한 건축설계교육은 에콜 데 보자르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에콜 데 보자르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도 콤포지션을 활용하여 건축설계교육을 실시하였다. 듀랑 이후 에콜 데 보자르에서는 기존의 파르티를 활용한 건축설계교육과 콤포지션을 활용한 건축설계교육이 혼용되어 실시되었다.

4. 결론

근대 초기 형성된 건축설계교육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듀랑의 콤포지션으로서 효율과 생산을 건축설계의 목표로 두고 진행하는 기능적, 합리적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처럼 창의적 건축개념을 설정하고 이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경향이다.

듀랑의 콤포지션이 건축설계교육에 적용된 이후 콤포지션의 활용은 에콜 데 보자르의 건축설계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에콜 데 보자르에서도 콤포지션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콜 데 보자르에서는 파르티라는 창의성과 콤포지션이라는 합리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건축설계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건축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건축설계교육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예술작품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설계교육에서 건축가의 개념은 그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건축설계교육에서 효율과 생산이 그 목표일 경우 건축가의 창의성보다는 합리성이 더 중요하다. 합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건축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형성된 두 가지 건축설계교육은 근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교육방법들이다. 에콜 데 보자르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건축설계교육은 1910년도에 유럽과 미국의 서구 건축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건축가라는 전문가의 자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건축설계교육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콤포지션을 통해 합리성을 강조하는 건축설계교육은 근대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거쳐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기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경향의 건축설계교육은 상호보완적인 교육방법이다. 창의성과 합리성을 둘 다 갖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위 두 가지 방식의 건축설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에콜 데 보자르에서 시행된 파르티와 콤포지션을 건축설계교육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안에 내포된 창의성과 합리성은 건축설계교육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 [1] David Van Zanten, The Architecture of the Ecole des Beaus-Arts, Museum of Modern Art, p.185, 1977
- [2]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McGill-Queens Univ. Press, pp.236-237, 1999
- [3] Robin Middleton, The Beaux-Arts and Nineteenth-century French Architecture, MIT Press, p.59, 1982
- [4] Bong-ryul Kim, Architectural Education and Educ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09
- [5] Jean Nicolas Louis Durand, Précis of the Lectures on

- Architecture, Getty Research Institute, pp.31-48, 2000
- [6] Richard A. Etlin, Symbolic Space: French Enlightenment Architecture and Its Legacy, Chicago Univ. Press, p.52, 1996
-

김 형 준(Hyoung-Jun Kim)

[증신회원]



- 1993년 2월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사, 건축론, 건축설계, 건축교육론